

광주 소각장 입지 5곳 타당성 조사

市, 후보지 선교·매월·양과·장등·연산동 내년 5월까지 용역 생활 쓰레기 하루 650t 처리... 선정지, 인센티브 등 1000억 지원

광주시가 총사업비 3420억원이 투입되는 자원회수(소각) 시설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공모에 지원한 5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구 선교동, 서구 매월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이다. 광주시는 14명으로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용역은 한국종합기술과 도화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 형식으로 맡는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기술, 경제, 사회, 환경 등 여건과 폐기물 시설 추진법 등 법규를 검토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입 금지 조치에 대비해 총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입지지역에 편익시설과 인센티브 등 1000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입지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사 순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기피시설이면서도 필수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보고

회 개최, 선진시설 견학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입지후보지 공모에서 6곳(타당성 조사 대상은 5개소)이 선정됐다.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내용은 광주시보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 등을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고하고, 시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정신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서는 자원회수 시설 건립이 필수"라며 "주민 친화형, 친환경, 지역 명소화를 목표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세수부족에 1000억 지방채 발행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결손 극복"

광주시는 경기 침체 등으로 국세 감소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1000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세수 결손 대응 방안 마련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희율(민주·남구 3) 시의원이 질의한 '국세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보통 교부세 세입이 2161억원 감소하고, 여기에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더하면 올해 4904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시설비 등 집행유예가 가능

한 사업비 1820억원의 이미 삭감 또는 불용 조정을 마쳤고, 2차로 연말까지 3084억원을 추가로 세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올해 세입 결손 등으로 여유재원이 이미 고갈된 상황이어서 지방채 1000억원의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세입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1000억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00억원,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활용하고, 오는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 대상 중 '집행불가 및 지출지연' 사업 위주로 1500억원을 삭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최악의 재정가뭄을 겪고 있지만,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전남도제공>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힘 모은다

전남도·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 협약... 복합해양 관광 거점 육성

전남도가 1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세계적 복합해양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위원인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금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상임고문, 여수시민단체와 사·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들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남해안권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다목적 해양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 ▲종합개발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정책 건의 및 행정 지원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수렴 ▲박람회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국

제컨벤션센터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방향성 기초조사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해양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기폭제 역할을 하고, 여수가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여수가 전남 마이스산업의 심장이자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남도음식관' 문전성시

향토 먹거리로 관람객 발길 줄이어... 33개국, 기후위기 협력 다짐도

오는 22일까지 순천만생태공원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가 맛의 고장 전남의 다양한 향토먹거리를 판매하는 남도음식관이 인기를 끌면서 관람객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다.

또 참가한 세계 각 나라의 내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을 다짐하는 등 박람회가 세계 공통된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는 교류·협력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6회째를 맞아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을 주제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는 주제관, 농업문화놀이터 등 다양한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내외 학술행사도 진행돼 관람객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은 남도음식관. 먹거리 장터인 남도음식관에서는 맛의 고장 전남을 대표하는 향토음식과 전국 최대 오일장 순천 아랫장의 포근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메뉴는 나주곰밥, 짬뽕어탕, 우거지국밥, 현미

잔치국수, 찜닭어튀김, 칠계튀김, 꼬막비빔밥, 닭목살볶음, 오리부추볶음, 떡볶이, 한식부페 등 38가지로 다채롭다.

박람회 누리집에 음식 메뉴와 가격을 사전 공개하고 모든 부스에서 메뉴별 가격을 표시하고, 일회용품 최소화를 위해 당후루 판매 제한 등 쓰레기를 줄이는 친환경 측제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는 "남도음식관에서 관람객에게 질 높은 음식 서비스와 안심 먹거리를 제공해 즐거운 체험이 되고 있다"며 "불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33개국 200여 명이 참여한 해외내빈 환영의 장에는 기후위기시대 탄소저감 축산환경, 치유농업 등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영락공원 제3봉안당 설계당선작 선정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물의 정원 등 친환경 공간 조성

광주시는 "영락공원 제3 봉안당 등 설계 공모에서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휴먼플랜은 용도 특성을 고려한 동선 계획, 대지의 높낮이 차이를 활용한 배치 계획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신설되는 봉안당은 중정, 물의 정원을 갖춘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휴먼플랜에 용역비 9억 3000만원 상당 기본·실시설계권을 주고

15개월간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립 영락공원에 4만5000기 규모 제3 봉안당(추모관)과 화장시설 6기를 갖춘 제2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급격히 늘어나는 화장 수요와 시민의 장사 시설 고급화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와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수목장(자연장)을 무료로 안치해드립니다.
(회원에 가입 한 분에 한함)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